한중Zine
INChinaBrief
Vol.392 2021.01.25.

ISSN 2765-1444

2021년 중국 경제 주요 이슈와 전망

인천연구원

한중Zine
INChinaBrief
Vol.392 2021.01.25.

2021년 중국 경제 주요 이슈와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혁신성장팀
한재진 연구위원 (hzz72@hri.co.kr)

목 차

1. 최근 중국 경제 현황 및 정책
2. 2021년 중국 경제 주요 이슈
3. 시사점

본 보고서는 집필자의 견해로 인천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 2020년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무역마찰 등 대내외 변수에 직면했으나 하반기부터 재정 및 통화 등 거시정책에 따른 경기 회복 효과가 나타남.
  - 2020년 중국의 4분기 GDP는 6.5%로 2분기부터 빠른 회복세 지속
- 2021년은 14차 5개년 규획 등 새로운 정책효과에 힘입어 8%대 성장이 예상
  - IMF, OECD 등 국제기관은 올해 8% 이상 성장을 전망
- 특히, 올해는 라이브커머스 등 새로운 유형의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중국 소비시장의 성장동력 역할이 기대되며, 신형인프라 등 디지털 뉴딜 정책도 가속될 것으로 예상
- 대외통상 측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RCEP, CPTPP 등 다자무역주의가 중국의 새로운 통상전략으로 채택될 것이지만 미·중 간 상호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술전쟁 가능성 커지는 상황
-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확대 등 대규모 경기 부양 조치 여파로 국가부채 확산이 지속하여 향후 은행 부실 및 부동산 문제로 확산 가능성도 상존

1. 최근 중국 경제 현황 및 정책

1) 경제 동향

▣ 2020년 중국 경제는 상반기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미·중 무역마찰 등 대내외 변수로 침체 국면이었으나, 이후 확대 재정 및 완화된 통화정책 등 경기 부양 조치로 하반기부터 V자형 반등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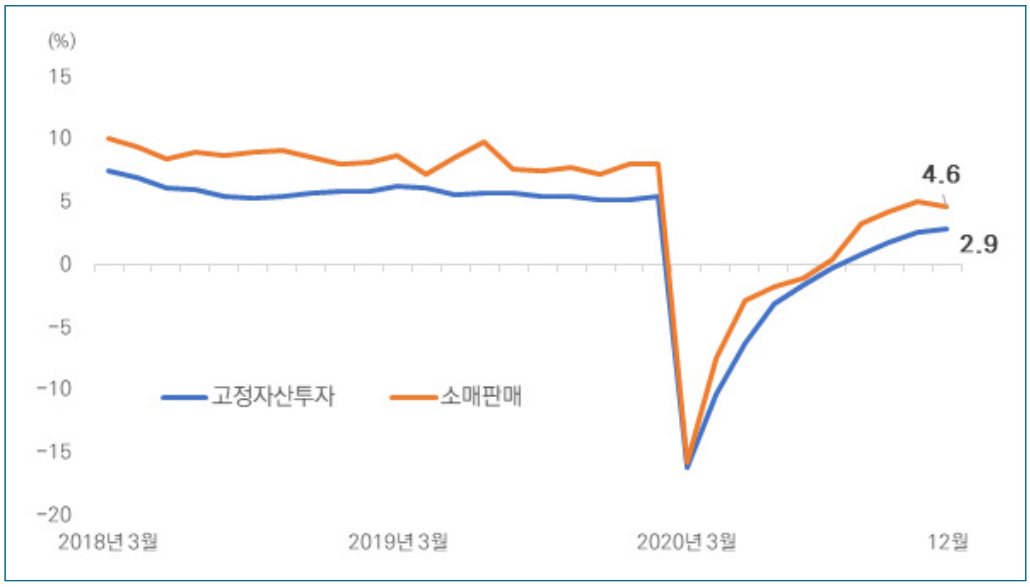
○ 중국의 분기별 GDP는 2020년 4분기 6.5%를 기록하며, 2분기부터 차츰 회복세로 전환

- 2020년 1분기 중국 GDP는 코로나19에 따른 셧다운(Shutdown) 영향으로 -6.8%로 급락했으나 2, 3, 4분기 각각 3.2%, 4.9%, 6.5%로 회복세를 보임.
- 산업생산 증가율은 2020년 12월 7.3%로 동년 3월 -1.1%에서 4월 3.9%로 급증한 후 회복세가 지속

○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문과 외수 부문의 동반 회복이 이어짐.

- 소매판매 증가율은 2020년 연간 -3.9%를 기록했으나, 동년 3월 -15.8%로 급락한 후 8월부터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소비시장 회복이 지속
- 고정자산투자는 동기준 2.9% 증가하며 2020년 9월부터 3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율이 지속되고 있음.
- 외수 경기도 2020년 12월 18.1%로 동년 7월부터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대미수출은 10월 기준 미·중 1차 합의, 코로나19 관련 상품 수출증가 등의 영향으로 20%대의 증가율을 보이기도 함.

[그림 1] 중국의 소비 및 투자 현황 (단위: %)



주: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수치는 누적기준.
자료: CEIC.

○ 이러한 경기 회복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뿐 아니라, 2분기부터 가속화된 확대 재정 및 완화된 통화정책 등 정책효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인민은행은 2020년 3월 시행한 확대 재정과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등 대대적인 경기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시도함.

- 2020년 초 철도, 도로 등 기초인프라 투자에 대한 재정투입뿐 아니라, 4월 20일 '2020년 1분기 재정수지현황 언론발표회(2020年一季度财政收支情况新闻发布会)'에서 추가로 1조 위안의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专项债券) 발행, 5월에는 신형인프라 투자 계획을 제시함.

• 2020년 양회에서 발표한 신형인프라 계획이란 △정보망(5G, AI, 데이터센터, 산업인터넷), △교통망(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에너지망(초고압설비, EV 충전소) 등 7대 분야 3대 네트워크로 구성됨.

- 2020년 중국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 대출우대금리 등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 추진

• 중소형 금융기관에 대해 지급준비율 3회(1, 4, 5월), 역환매조건부채권[1] 2회(2, 3월), 중기유동성창구[2] 2회(2, 4월), 대출우대금리[3] 3회(2, 3, 4월) 등 관련 금리 인하

▣ 2021년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 미·중 통상분쟁 등 리스크 확대가 없는 한 14차 5개년 규획 등 정책효과로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큼.

○ 2021년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 바이드노믹스(Bidnomics) 개막에 따른 새로운 미·중 통상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는 한 빠른 회복세를 보일 전망

○ IMF, OECD 등 국제기관은 2021년 중국 경제가 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주요 IB들은 최소 7.5%에서 최대 9.5%까지 성장 예상

- 2020년 중국 GDP 증가율은 2.3%를 기록하며, IMF(2020.10)에서 전망한 1.9%를 웃돌며 올해 8% 이상의 성장이 예상

1) 역환매조건부채권(Reverse RP)이란 시장에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통되는 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
2) 중기유동성창구(Mid-term Loan Facility, MLF)란 중국인민은행이 중국의 은행권에 중기유동성을 공급하는 창구로 시장의 유동성 경색을 사전에 막으려는 조치.
3) 대출우대금리(Loan Prime Rate, LPR)란 기존의 기준금리 사용을 중단하고 은행 신규 대출의 유일한 기준금리 수단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새로운 지표 역할을 하고 있음.

[표 1] 주요 기관의 2021년 중국 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21(E)	구분	2021(E)
IMF	8.2	Fitch Ratings	7.7
OECD	8.0	Goldman Sachs	7.5
World Bank	7.9	JP Morgan	8.6
Deutsche Bank	9.5	UBS	8.2

자료: Bloomberg, 각 기관 자료.

2) 새로운 5년간의 정책 제시

▣ 2021년은 14차 5개년 규획(2021~2025) 시작으로 향후 경제부문의 세부적인 중장기 목표가 제시될 전망

○ 2020년 10월(26일~29일까지)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 第十九届中央委员会第五次全体会议)[4]가 개최됨.

- 19기 회의에서는 2021년~2025년까지 시작될 14차 5개년 규획(이하 〈14·5 규획〉)[5]을 통해 향후 5년간의 경제개발 계획 및 2035년까지의 장기 계획 목표도 논의

○ 2021년 전인대에서 선보일 〈14·5 규획〉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년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지연되고 있는 〈13·5 규획〉에서 세웠던 샤오캉 사회(小康社会) 목표 실현 등 정치 및 경제적 함의가 큼.[6]

4) 중국공산당 설립 이후 5년마다 열리는 당 전체회의로 19기는 2017~2021년까지 기간을 의미함. 통상 5년을 기준으로 할 때, 1년 차는 1, 2차 회의, 2년 차는 3차 회의, 3년 차는 4차 회의, 4년 차는 5차 회의, 5년 차에는 6, 7차 회의가 개최. 5차 회의는 주로 경제개발 관련 현안을 다룸.

5)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지표를 의미하는 5개년 계획은 195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20년까지 13차 5개년 계획이 종료된 상황.

6) 중국의 사회발전 단계는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원바오 사회(温饱社会)를 거쳐 의식주는 물론 인민들의 문화생활 향유 단계를 의미하는 샤오캉 사회(小康社会)를 달성하고 마지막으로 다퉁 사회(大同社会)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샤오캉 사회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달성한다는 게 목표임.

[표 2] 중국의 13차 5개년, 14차 5개년 규획 비교

구분	13차 5개년(2016~2020)	14차 5개년(2021~2025)
목표	•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 건설 (공산당 창당 100주년)	• 현대화국가 건설 • 1인당 소득 중진국 수준 도약, 문화소프트 파워 격상
경제발전	• 혁신, 균형, 녹색, 개방, 공동향유	• 쌍순환(双循环) 전략
거시조절	• 적극적 재정정책, 안정적 통화정책	• 적극적 재정정책, 중립적 통화정책
산업발전	• 신흥산업 및 인터넷 경제 구축 • 중국제조 2025 • 신형인프라 초안 구성	• 중국제조 2025 심화 • 인터넷 및 디지털 강국 • 풍력태양광, 에너지 저장기술 등 친환경 신에너지 기술개발 주력 • 신형인프라 및 교통 강국 건설
지역통합	• 4대 반콰이(四大板块) + 3개 지지대 (三个支撑带) • 신형도시화(2021년 '양회'에서 제시) 구상	• 거대 도시군 재편 및 국제적 도시 육성 • 지역 격차 해소(발해만·대만구 발전 추진) • 지역조화발전(신형도시화 확대)
기업개혁	• 국유기업 : 혼합소유제 • 민영기업 융자 문제	• 국유기업 부채 문제 해소 방안 • 민영 및 소형기업의 융자 문제 해소
대내외개방	• 무역강국, 외국인 투자 개방 • 전자상거래 등 신체제 형성 • 일대일로 건설 추진 • 다자무역체제 확대	• 다자무역주의 지속 추진 • 일대일로 추진 지속 • 외국인 투자 개방 가속

자료: 中国共产党新闻网(2020. 10. 29.), 양평섭 외(2015) 등 자료 정리.

2. 2021년 중국 경제 주요 이슈

1) 비대면 소비 확산

▣ 2021년 중국 소비시장은 지난해 초 코로나19로 인한 하강국면을 벗어나 빠른 회복 국면으로의 진입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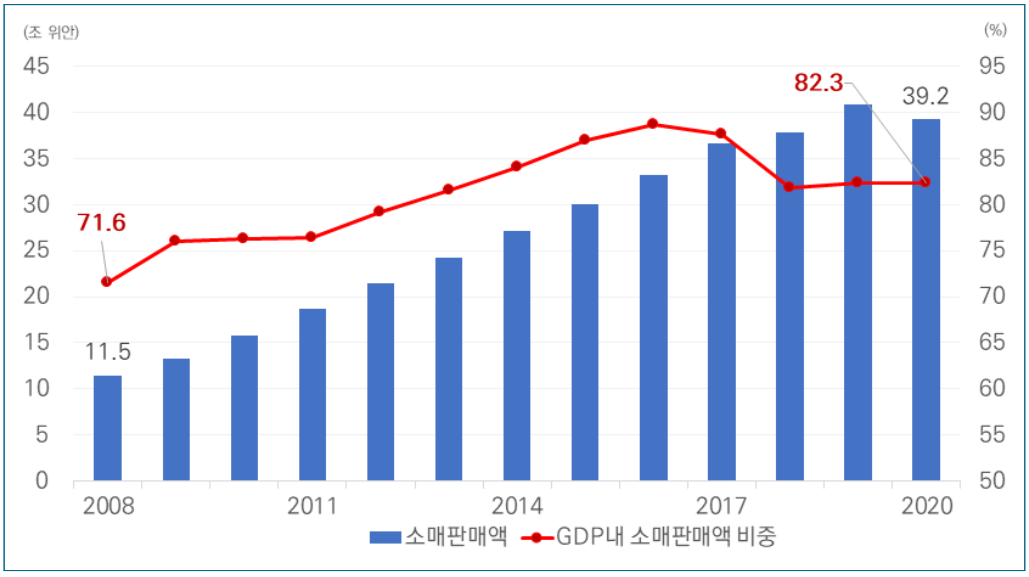
○ 중국 소비시장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 확대되는 추세였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소폭 감소

- 중국의 소매판매총액은 지난 2008년 약 12조 위안에서 2019년 약 39조 위안으로 3배 이상 증가
- 그러나 2020년 소매판매총액은 연간 39.2조 위안을 기록하며 2019년 40.8조 위안보다 소폭 낮은 규모를 보임.

○ 다만, 중국 소비시장은 올해부터 시작될 '쌍순환' 전략의 핵심축인 만큼, 온라인 상거래 급증 등 비대면 소비 활동을 통한 회복이 가속화될 전망

[그림 3]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

(단위: 조 위안, 비중 %)



자료: CEIC.

▣ 향후 중국 소비시장은 빠른 1인당 GDP 증가가 전체 GDP 규모 확대에 기인하며 2030년 안에 미국경제를 위협할 핵심 키(key)가 될 전망

○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중국의 GDP 수준은 2030년 내 미국을 추월할 예정

- 일본경제연구센터(JCER)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가 4~5년 내 해소된다고 가정할 때, 중국의 명목 GDP가 2028년쯤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추정

• 그러나 5년 이상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2035년 중국(홍콩 포함) GDP는 약 41.8조 달러로 미국과 일본의 GDP 합계인 41.6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함.

- 또, JCER은 2035년까지 1인당 GDP 규모가 2만 8,000달러가 이를 것으로 추정. 19기 당대회에서 나온 2035년까지 중진국 소득수준 도약 목표 달성도 가능하다고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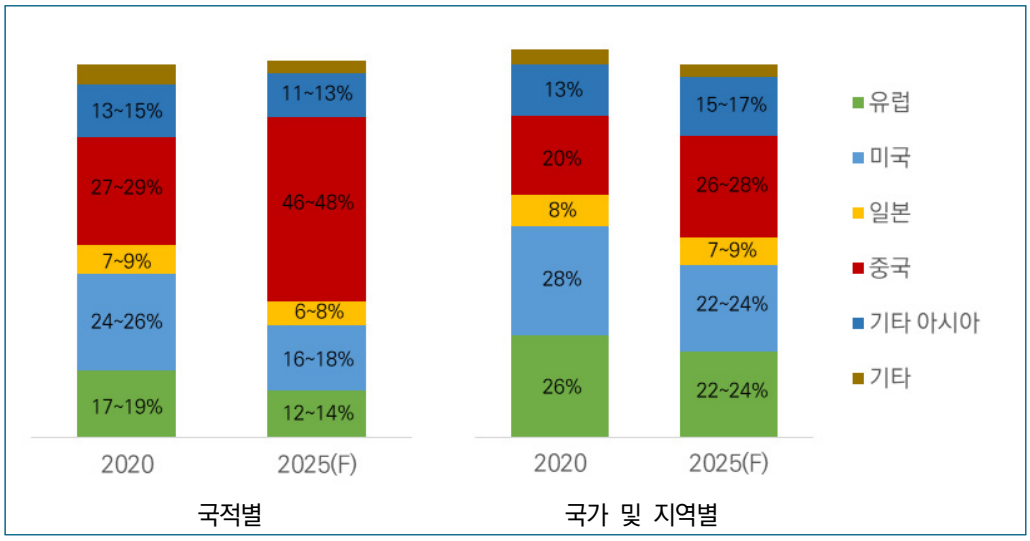
▣ 이러한 소득증대 양상은 럭셔리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2025년 중국은 세계 최대 럭셔리(luxury)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정

- Bain&Company(2020)에 따르면, 2025년 세계 럭셔리 제품 구매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48%를 차지하며, 18%인 미국인을 압도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지역별로도 2025년 중국은 전 세계의 약 26~28%로 단일시장으로는 미국을 추월, 세계 최대 럭셔리 소비시장으로 도약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5] 세계 럭셔리 소비시장 전망 (단위: %)



자료: Bain & Company(2020, 25)

▣ 소비형태 측면에서는 라이브커머스 등과 같은 비대면 소비 유형이 확산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타오바오(淘宝) 등 플랫폼을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형태의 실시간 상품 판매는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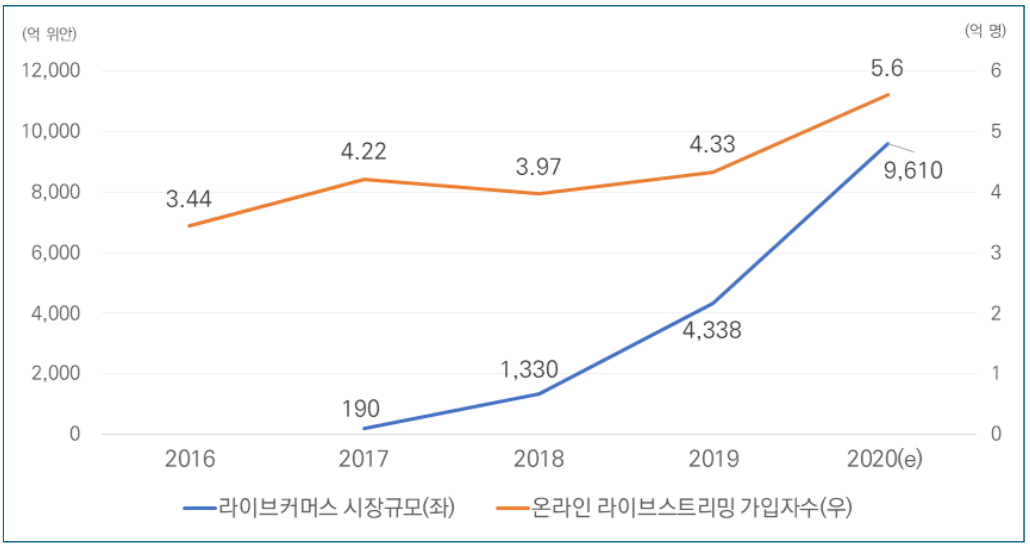
- 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란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실시간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방송을 의미함.

○ NResearch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온라인 라이브스트리밍 가입자는 5억 6,000만 명이며, 이 가운데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사용자는 약 2억 6,500만 명에 이름.

○ 2020년 라이브커머스 시장규모는 9,610억 위안으로 2017년 190억 위안의 50배 이상 급증하며, 향후 다양한 비대면 온라인 소비형태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

[그림 6] 중국의 라이브커머스 현황

(단위: 억 위안, 억 명)



주: 2020년 온라인 라이브스트리밍 가입자는 3월까지 기준.
자료: NResearch, iiMedia Research.

2) 디지털 뉴딜 정책 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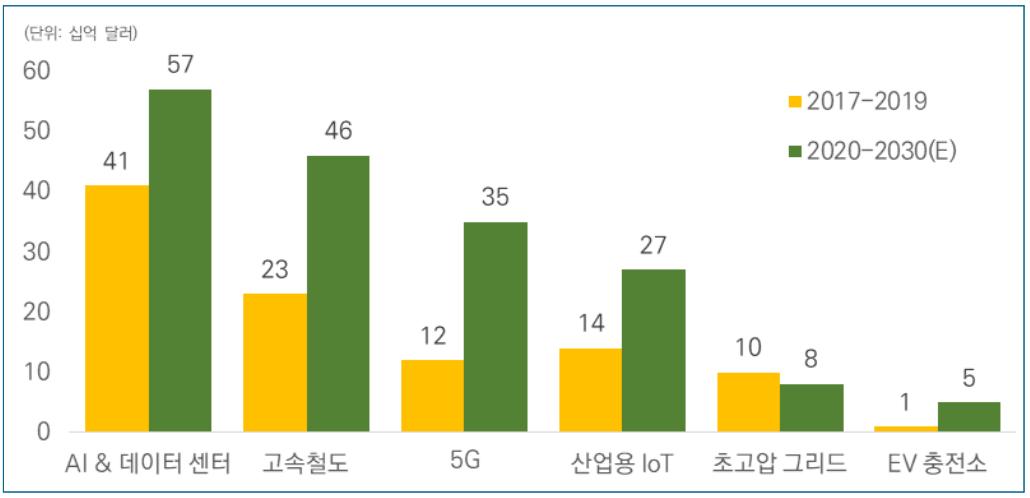
▣ 2021년 중국은 신형인프라 등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이 지난해보다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함.

○ 2020년 5월 개최된 양회에서 제시한 인프라 투자 계획은 교통 등 기초 SOC 부문과 5G, AI 등 첨단제조업 간 융합한 일종의 디지털 뉴딜 정책의 특성을 가짐.

- 신인프라 투자 정책은 정보망(5G, AI, 데이터센터, 산업 인터넷), 교통망(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에너지망(초고압 설비, EV 충전소) 등 7대 분야에서 3대 네트워크로 구성된 계획을 의미함.

  • 모건 스탠리(2020)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까지 EV 충전소, 초고압 그리드, 산업용 IoT, 5G, 고속철도, AI & 데이터센터 등 7대 인프라 투자 부문에서 약 1,780억 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추정

[그림 7] 중국 신인프라 투자 계획 (단위: 십억 달러)



자료: Morgan Stanley(2020).

3) 다자무역주의 확산

▣ 대외통상 측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향후 CPTPP 등 다자무역주의가 중국의 새로운 통상전략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짐.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와 함께 향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통한 다자무역주의 전략 가속이 예상됨.

- 중국 주도의 RCEP는 2020년 11월 15일 인도를 제외한 총 15개 회원국이 서명하면서 올해 발효만 앞둔 상황

  • RCEP는 세계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으로 발효 시 교역 및 투자 등 경제적 측면에서 회원국 간 역내 거래 증가 효과가 전망됨.

- 또, 최근 중국은 RCEP 서명에 이어 2020년 11월 20일 CPTPP 가입에도 긍정적 견해를 표명

  • 바이든 행정부 통상기조 대응을 위해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적극 고려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표 3] 기존 다자무역주의의 경제적 효과 비교 (단위: 비중, %)

구분	인구	GDP	수출	수입	FDI(순유입)
RCEP	47.5	32.1	27.1	26.8	41.8
인도 제외	29.7	28.9	25.0	24.2	38.3
NAFTA	6.5	27.3	10.7	4.6	28.3
CPTPP	6.6	12.9	13.5	13.5	24.1
EU(28)	6.8	21.9	34.6	32.7	4.2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UN, World Bank, WTO 자료를 종합하여 저자정리

▣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통상정책을 강경 기조는 유지하되 직접적 제재보다는 다자통상체제를 통한 견제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큼.

○ 바이든 행정부는 TPP 재협상, WTO 체제개혁 등 다자무역협정에 대해 호의적 입장을 보여 대중국 통상전략의 변화가 예상됨.

- 기존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무역확장법 232조 등의 일방적 관세 부과 형태를 지양하고 국제통상 질서를 회복한다는 견해
- 대중국 통상정책 역시 강경 기조는 유지하되 다자통상체제를 활용한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중국 견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큼.

[표 4]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

구분	주요 내용
다자무역협정	• TPP 재협상 의지 표명 등 다자간 무역협정에 호의적 • WTO 체제 개혁을 통한 새로운 통상질서 확립 예상
통상·관세	• 무역확장법 232조 등 일방적인 관세 철회 가능성 확대 • 국제통상 규범 및 질서 옹호
대중국 정책	• 대중국 강경 기조 유지하나 직접적인 제재보다 다자통상체제 등을 통한 동맹국과의 협력으로 대중 견제 추진

자료: 정민(2020), 바이든 선거 운동 홈페이지(https://joebiden.com/), 언론 보도를 종합하여 저자정리

4) 새로운 미·중 기술전쟁의 서막

▣ 바이든 행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려는 이른바 미국 중심의 공급망(Supply Chain)과 중국의 '중국제조 2025' 간 충돌로 양국 간 기술전쟁 확산이 우려

○ 과거 90년대 미국 산업 경쟁력은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를 선도했으나, 중국, 한국에 추월

-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에 따르면, 미국의 산업 경쟁력 순위는 90년대 후반에 1위를 기록했으나, 2018년 현재 4위를 기록
- 반면, 한국과 중국의 산업 경쟁력 순위는 90년대 초 순위권 밖이었으나 2018년에는 각각 2위, 3위를 기록하면서 미국을 추월

○ 이에 따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간 무역전쟁뿐만 아니라, 화웨이(Huawei) 등 중국의 첨단 제조업체에 대해 강하게 압박

- 2019년 5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중국 5G 기술 선도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2020년 5월 반도체 수급 전면 차단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이어오고 있음.
  -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18)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국은 이동통신기술에서 미국 및 유럽에 이어 세계 세 번째의 기술력을 보이며 그 격차도 빠르게 축소
  - 또,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5G 특허 패밀리(Patent Familes) 수를 살펴보면, 이미 등록 완료한 5G 특허 건수는 2018년 기준 중국 화웨이가 3,325건으로 미국 퀄컴의 2.5배 수준[7)]
  - 아울러, 화웨이는 미국특허청, 유럽특허청, 특허협력조약 중 최소 한 곳 이상 제출한 5G 출원 특허 건수는 2,379건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수준
- 최근에는 미국 회계감사 기준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한 미국 증권시장 상장을 막은 법안도 상하원에 통과되면서 중국의 통신 3사, 텐센트, SMIC(중신궈지, 파운드리 업체) 등에 대한 미국 증시 퇴출 프로세스가 진행

7) IPLytics, Who is leading the 5G patent race?, Nov, 2019.

○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추구하는 'Supply America'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

○ 결과적으로, 중국의 〈14·5 규획〉에서 나올 수 있는 '중국제조 2025'와 같은 중장기 제조업 혁신 전략과도 충돌하며 새로운 기술전쟁으로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표 5]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정책 전망

구분	주요 내용
Buy American	• 청정에너지 및 인프라 계획과 함께 미국 제품, 자재 및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수요 창출
Make It In America	•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미국 제조업의 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
Innovate In America	• 전기 자동차, 경량 소재, 5G 및 인공지능 등 3,000억 달러의 연구개발(R&D) 투자
Invest In All Of America	• 조달, 연구개발, 인프라, 훈련, 교육 등에 투자 확대 및 중소기업 투자 확대
Stand Up For America	• 미국을 위한 공정성 확대와 글로벌 리더십 강화
Supply America	•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자료: 바이든 선거 운동 홈페이지(https://joebiden.com/) 저자정리

5) 부채 리스크 재부각

▣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확대 등 대규모 경기 부양 여파로 향후 부채 리스크의 재확산 우려도 상존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부채 수준이 역대 최대치로 급증

-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현재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중은 280.3%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 이는 10년 전인 2010년 2분기와 비교해 100.4%p나 증가

  • 특히, 가계, 기업, 정부의 비중은 각각 59.1%, 162.5%, 58.7%로 모든 수치가 역대치를 기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채무자가 정해진 시한에 원리금 상환을 받지 못하는 지급불능 상태인 회사채 디폴트(Default) 증가에도 영향

- 중국중앙청산소(China Central Depository & Clearing Corporation)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1월 누적기준으로 중국의 회사채 디폴트 규모는 약 1,209억 위안이며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8% 급증

- 디폴트 건수는 동기준 117건으로 지난해 11월 121건보다 적으나, 건당 디폴트 규모는 2019년 평균 약 7.8억 위안보다 많은 10.3억 위안에 이름.

○ 이에 따라, 2021년 중국 경제가 회복 국면 진입을 위해 3월 양회에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늘릴 경우, 향후 부채문제가 은행권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상존

3. 시사점

▣ 2021년 중국 경제는 〈14·5 규획〉에서 강조하는 내수중심의 '쌍순환' 전략이 대대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3월로 예상되는 양회에서는 〈14·5 규획〉 기간인 2025년까지의 중장기 경제개혁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전망됨.

- 예를 들어, 공급측 개혁,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신형도시화 추진, 대외 개방 및 금융개혁 등 경제의 다방면에서 업그레이드 방안 도출이 예상

○ 또, 중장기적으로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중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50년까지 세계 최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중국 정부는 2035년까지 전 국민 공동의 부유 실천을 위한 실질적 추진을 강조

○ 이를 위해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기술적 자립 및 혁신, 친환경 등 질적 개선을 추진하여 미국의 대중국 기술 봉쇄 및 압박 탈피를 위한 전략 마련도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 바이드노믹스로 진입하면서 미·중 간 새로운 통상마찰 양상이 확산할 것으로 우려

○ 향후 2차 미·중 무역협상에서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 거론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보호 및 중국의 첨단산업 관련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보임.

-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화웨이, 텐센트, SMIC 등에 대한 제재를 다른 중국기업에도 적용할 가능성 상존

○ 중국기업의 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기술탈취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없애기 위해 WTO 등 기존 무역체제 활용 전망

- 또한,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이 도입된 부품에 대한 중국기업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향후 미·중 통상마찰 유형은 트럼프식 관세폭탄 및 중국기업제재 등 방식에서 다자무역체제를 활용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 확보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등 공정성을 앞세운 대중국 압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채 확대 등으로 인한 금융부문의 부실 문제가 두드러질 가능성도 상존

○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채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지난 2016년처럼 디레버리징(Deleverage)을 강요하기보다는 리레버리징(Releverage)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큼.

- 중국의 국가부채는 전체 GDP의 280%를 넘어서는 등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상황
- 이는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중국 경제 침체 국면 회복을 위한 재정확대 조치와도 관련이 높아서 중국 정부는 디레버리징을 보류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올해부터 시작되는 〈14·5 규획〉 기간 동안 신형인프라 및 신형도시화 등 전방위적 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부채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2021년 3월 양회에서는 도로, 철도 등 기초 SOC 투자뿐 아니라, 5G 등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대한 새로운 플랜을 제시하고, 부채 축소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향후 중국의 부채 확산에 따른 디폴트 기업 증가는 국유은행 등 금융권 부실은 물론 부동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

참고자료

정민 외(2020).「바이드노믹스의 특징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양평섭 외(2015).「중국 13차 5개년 규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Vol 15 No 30.
오수현 외(2019).「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잠정 타결: 의미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Vol 19 No 24.
유종호 외(2019).「2018년도 전문가 심층평가를 통한 ICT 기술수준조사 보고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Bain & Company. 2020. "Bain-Altagamma 2020: Worldwide Luxury Market Monitor." Claudia D'arpizio & Federica Levato.
JCER. 2020. "Asia in the coronavirus disater: Which countries are emerging?: China overtakes U.S. in 2028-29", Medium-Term Forecast of Asian Economies(2020-2035).
IPLytics. 2019. "Who is leading the 5G patent race?", Nov, 2019.
Morgan Stanley. 2020. "New Infrastructure Opportunities Handbook".
「中国共产党第十九届中央委员会第五次全体会议公报」中国共产党新闻网. 2020. 10. 29. http://cpc.people.com.cn/n1/2020/1029/c64094-31911510.html(검색일: 2020년 12월 20일)
중국국가통계국(http://www.stats.gov.cn/)
유엔산업개발기구(http://www.unido.org/)
국제결제은행(https://www.bis.org/statistics/totcredit.htm).
바이든 선거 운동 홈페이지(https://joebiden.com/).
CEIC(https://www.ceicdata.com/ko).
Nresearch(https://www.nresearch.com/).
iiMedia Research(https://www.iimedia.com.cn/en).